



2012년 11월 20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역대 대선과 증시, 그리고 18대 대선

• 채권분석

Bear steepening? Bull steepening부터 대비하자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종합 장 중 2,000p 하회 후 강세 전환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동일금속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디스플레이, 자동차, 강원랜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11/1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0.87	1,889.70	1,894.04	1,870.72	1,860.83	1,878.10
	등락폭	-3.54	-11.17	4.34	-23.32	-9.89	17.27
	등락종목	상승(상한)	214(4)	337(4)	230(6)	241(5)	603(6)
		하락(하한)	613(5)	482(9)	612(4)	585(2)	237(1)
	ADR	86.25	80.88	78.41	77.32	75.36	79.59
	이격도	10 일	98.87	99.19	98.11	97.89	98.96
		20 일	98.52	98.91	97.92	97.61	98.68
	투자심리	50	40	40	4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69	487	526	447	459	346
	거래대금 (십억 원)	3,735	3,859	4,699	4,137	3,988	3,204
코스닥	코스닥지수	521.43	513.80	503.24	493.84	482.99	493.14
	등락폭	1.53	-7.63	-10.56	-9.40	-10.85	10.15
	등락종목	상승(상한)	254(9)	273(5)	234(7)	218(6)	724(10)
		하락(하한)	475(3)	673(15)	711(9)	735(9)	218(4)
	ADR	85.88	81.91	78.64	78.70	74.44	78.26
	이격도	10 일	99.65	97.70	96.16	94.60	97.01
		20 일	99.68	97.86	96.23	94.44	96.71
	투자심리	100	90	80	7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09	473	464	462	465	391
	거래대금 (십억 원)	1,883	2,034	2,189	1,932	2,239	1,57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42.2	715.1	827.2	119.4	89.5	177.6	58.3	19.7	123.0	41.3
	매도	1,681.0	853.5	655.2	148.4	85.2	175.3	43.8	18.8	131.8	36.1
	순매수	-38.8	-138.4	172.0	-29.0	4.3	2.2	14.5	1.0	-8.8	5.2
	11 월 누계	309.1	-717.4	611.5	54.3	65.9	103.0	0.6	51.0	508.6	-203.2
	12 년 누계	-10,768.0	12,960.5	2,666.9	1,638.1	2,628.3	-4,989.9	-20.7	468.8	2,749.1	-4,859.4
코스닥	매수	1,355.8	112.4	111.8	16.0	15.3	37.1	8.5	5.3	25.8	14.1
	매도	1,421.7	59.0	99.0	25.5	10.5	24.4	7.6	8.3	21.7	14.4
	순매수	-65.9	53.4	12.8	-9.4	4.7	12.6	0.9	-3.0	4.1	-0.4
	11 월 누계	91.9	-43.2	42.6	35.8	-20.3	78.1	-72.3	3.4	22.9	-91.3
	12 년 누계	1,184.6	71.3	-450.2	88.1	60.7	-536.3	-267.6	-35.0	244.6	-805.7

역대 대선과 증시, 그리고 18대 대선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8.9배
12MF PBR	1.00배
Yield Gap	8.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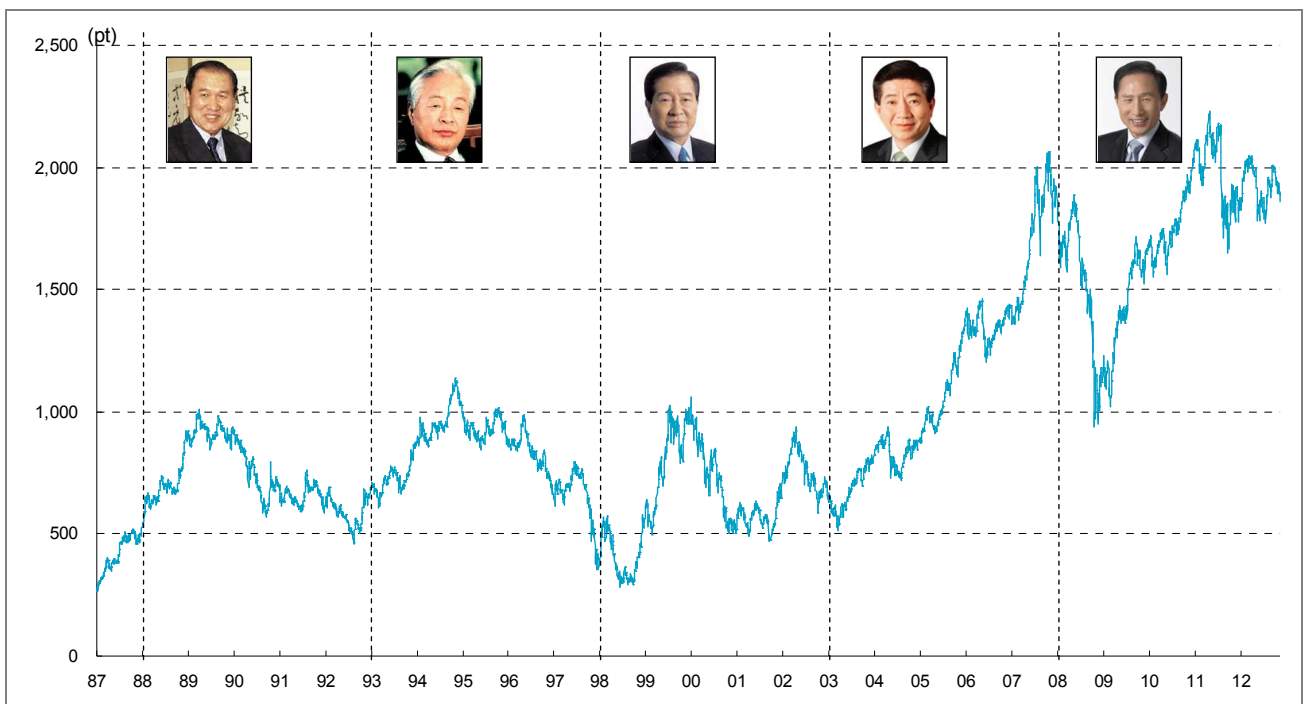
- ▶ 대선 이후 1년간 주식시장 대체적 상승세: 집권 초기 기대감 및 부양책
- ▶ 집권 1~2년차 이후 新정권 효과는 다소 희석, 그 이후 중요한 것은 경기의 향방
- ▶ 대선 경제 정책 핫 이슈: '경제 민주화', 단 승자 정책으로의 극단적 쏠림 가능성은 적어

■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을 앞두고 있다. 5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만큼,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일 이후 1년간 주식시장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고, 임기 2년차에 고점(또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신 정부 출범에 따른 희망과 각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5년 단임제의 영향으로 집권 초기에 경기 부양책과 혁신 정책이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로도 판단할 수 있으며, 집권초기의 정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소비증가율이 높은 현상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현재 및 과거 대통령 집권 시기별 KOSPI 움직임



자료: DataGuide, 한국투자증권

〈표 1〉 현재 및 과거 정부 기본목표/ 중점추진내용/ 대선 이전 시장 상황

정권	기본목표	중점추진내용	대선 이전 시장 상황
노태우 정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선진화와	- 경상수지 흑자기조에 따른 선진국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외적 소외부분의 보상욕구가 커지는 가운데 자율적/개방적인 시장 경제 지향	80년대 후반의 3저(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현상이 이어지며 수출 증가에 따른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
	국민복지 증진	-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 확대, 고기술부문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및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 주력	해외시장에서 풍부한 달러자금 확보, 유동자금 유입이 본격화됨
김영삼 정부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폭 수정한 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92년부터 시행.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개방 및 국제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삼음	- 선진금융시장에서의 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해 국내 금융부문의 각종 규제 완화 및 금융실명제 등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 주력 - 93년부터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민간주도에 의한 경영효율성 확보를 통해 전제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 대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변화시켜 주력업종 중심의 업종전화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업 집단으로 하여금 일정기준에 따른 주력기업의 선정 및 여신 자금 활용을 강화하도록 함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통과한 이후 점차 개선되려는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을	IMF 사태 등으로 경기 및 추가 모두
	민주적 시장 경제론을 제시. IMF 체제 진입 이후 재벌, 노동, 금융,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4개 구조개혁 추진. 특히 금융기관 및 재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	정부보증 공채 발행 등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 -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시장자율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빅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기업구조조정 등 직접 개입을 강화 -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등을 법제화 하는 등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 이를 위해 노사정 위원회 도입 등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견제 장치 마련	급락을 면치 못하던 시기. 이후 IMF 구제금융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금융부문의 개선과 경기회복에 대한 미약하지만 개선되려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초기에 신용카드 문제 후유증으로 소비 둔화되어 저금리 정책 추진. 인위적인 경기진작 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하였고,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 -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 제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속에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던 시기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정책 실시.	가계 소비 둔화되고, 세계 경제 침체
		-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조세 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고, 각종 규제로 인해 설비투자율은 부진	
노무현 정부		-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747 비전을 제시하면서 매년 7%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의 목표 제시	- 참여정부에서 보류된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보유 지분 매각 추진. - 감세 정책 및 조세 개편을 통한 조세행정 개혁, 기업활동 규제 회소와, 금융 규제 완화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기반 구축, 토목 경기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사업 추진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저성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초를 지나고 있던 시기

자료: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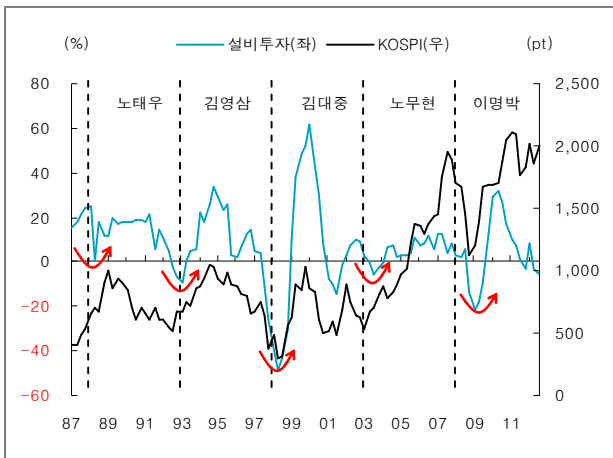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과거 대통령 선거 이후 통상 3개월 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설비투자자와 관련된 주식 및 내수주를 중심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경기활성화 조치나 新경제 계획 등 대규모 정부정책을 발표한 적이 많았으며, 많은 부분이 대규모 투자나 내수관련 분야에 집중되었던 때문으로 판단한다.

〈표 2〉 대선 전후 1년 주식시장 상위/하위 3개 업종 수익률

대선 前 1년							대선 後 1년						
	수익률 상위 3개 업종	수익률 (%)	KOSPI 대비 (%p)	수익률 하위 3개 업종	수익률 (%)	KOSPI 대비 (%p)		수익률 상위 3개 업종	수익률 (%)	KOSPI 대비 (%p)	수익률 하위 3개 업종	수익률 (%)	KOSPI 대비 (%p)
노태우	보험	192.4	121.9	운수장비	-8.8	-79.3	노태우	건설업	200.1	116.6	섬유, 의복	7.4	-76.1
86.12.16~	은행	186.5	116.0	전기, 전자	20.7	-49.8	86.12.17~	은행	149.4	78.9	음식료품	16.0	-67.6
87.12.15	금융업	181.9	111.4	기계	20.8	-49.7	88.12.16	유통업	137.0	66.5	화학	28.6	-54.9
김영삼	의약품	44.9	36.2	기계	-21.1	-29.8	김영삼	보험	83.7	53.5	은행	-6.3	-36.6
91.12.18~	섬유, 의복	37.2	28.5	운수장비	-16.5	-25.2	92.12.19~	철강및금속	73.9	65.2	금융업	4.2	-26.0
92.12.17	음식료품	22.4	13.7	유통업	-12.3	-21.0	93.12.18	전기, 전자	68.4	59.7	증권	13.4	-16.9
김대중	철강및금속	-7.2	29.5	건설업	-61.1	-24.4	김대중	증권	251.2	219.0	은행	-39.9	-72.1
96.12.18~	전기, 전자	-17.1	19.6	종이, 목재	-57.6	-20.9	97.12.19~	전기가스업	67.5	104.2	운수장비	-2.7	-34.9
97.12.17	은행	-28.8	7.9	섬유, 의복	-55.6	-18.8	98.12.18	의료정밀	55.2	91.9	금융업	-0.2	-32.4
노무현	운수창고	42.3	32.7	섬유, 의복	-31.9	-41.5	노무현	운수창고	99.8	85.5	섬유, 의복	-41.1	-55.4
01.12.19~	보험	30.9	21.3	서비스업	-31.7	-41.3	02.12.20~	기계	66.9	57.3	증권	-20.1	-29.7
02.12.18	전기, 전자	29.4	19.8	증권	-16.6	-26.2	03.12.19	의료정밀	61.6	51.9	통신업	-17.6	-27.2
이명박	기계	94.1	63.7	은행	-3.9	-34.2	이명박	통신업	-15.5	20.5	건설업	-54.3	-18.3
06.12.19~	운수창고	92.7	62.3	전기, 전자	2.9	-27.5	07.12.20~	전기가스업	-20.6	15.3	기계	-46.2	-10.3
07.12.18	철강및금속	78.9	48.5	전기가스업	3.7	-26.6	08.12.19	전기, 전자	-24.6	11.4	비금속광물	-45.8	-9.8
?	의약품	31.79	27.04	기계	-22.44	-27.18							
11.12.20~	음식료품	27.63	22.89	건설업	-16.30	-21.04							
12.11.19	전기, 전자	27.48	22.74	철강및금속	-10.34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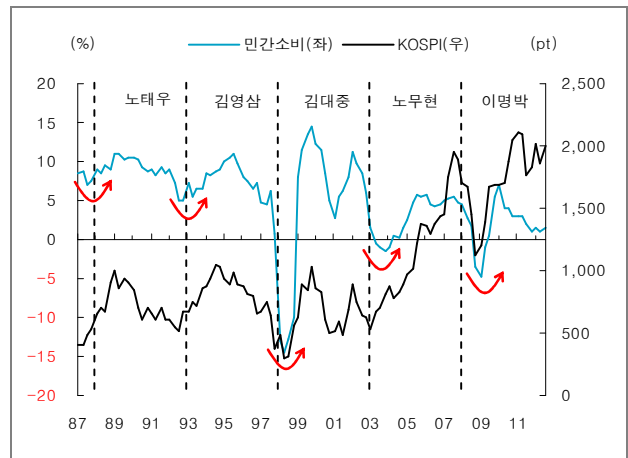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국내 분기별 설비투자 YoY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국내 분기별 민간소비 YoY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직전의 아시아 금융위기/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상황 외에도 대선 전후 시기는 대체로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았던 때였다. 대선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면에는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적극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대선 이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으로 일시적인 주가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집권 1~2년차 이후 대체로 희석되는 모습이 관찰되며, [그림 2],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이 어느정도 자리 잡은 뒤에 주가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은 경기와 같은 '경제 펀더멘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18대 대선 경제 정책 핫 이슈: 경제 민주화

18대 대선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재벌개혁 필요성,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해석, 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한 개혁의 강도 및 범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표 3〉 경제민주화 관련 후보별 세부 정책 및 입장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정책방향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 - 경제민주화 관련 개별기구 설립 추진 부정적	- 국무총리실 소관 경제 민주화 기본법 추진 - 경제 민주화 이슈 총괄 및 제도화 - 개별법 충돌과 모순 해결 - 총리실 소속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매년 재벌개혁성과 보고 -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순환출자	- 신규출자분만 규제 - 기존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관련 내용 불포함	- 신규출자분 규제(신규출자 금지, 기존 출자 3년 유예) - 기간 후 의결권 제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 신규 순환출자금지, 기존 출자는 자율적 해소 유도 후 - 개입 여부 판단
출총제	- 출총제 부활 반대, 공정거래법으로 보완	- 출총제 부활(상위 10대 대기업은 순자산의 30%)	- 일관성 필요(미정)
금산분리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완화제검토 필요	-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 보험/증권 지주회사 계열사 제한 - 강화필요(산업자본의 의결권 취득 한도 9% → 4%)	-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 -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 금산법 24조 예외조항 정리
상생/공정거래, 재벌개혁	- 일감몰아주기 금지 - 골목상권 보호 - 징벌적 손해배상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안 논의 - 횡령/배임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 사면제한 - 대기업 집단법 도입(미정)	- 일감몰아주기 금지 - 골목상권보호 - 징벌적 손해배상 - 기업범죄 사면제한, 처벌 강화 및 집행유예 제한 - 부당 지연 수해 계열사 과징금 부과 및 수해 총수일가 - 에 업정 과세	- 일감몰아주기 금지 - 지역업자/골목상권 보호 - 징벌적 손해배상 -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집행유예 방지, 사면권은 국회 - 동의 거쳐 행사 - 재벌개혁위원회 신설
선거 캠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정책 담당자	"경제주체 탐욕 절제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틀이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노동기본권 확립, 사회적 경제 확대가 경제민주화"	"더불어 함께 살자는 정의로운 경제가 경제민주화"
관련 코멘트	"재벌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혼란"	"불공정거래 해소 등 재벌 외부 개혁과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내부 개혁 동시 추진해야"	"혁신 저해하는 기득권 체제 청산하고 재벌권력 사회적 견제 받아야"

주: 세 부 선거 공약은 일부 변경 가능

자료: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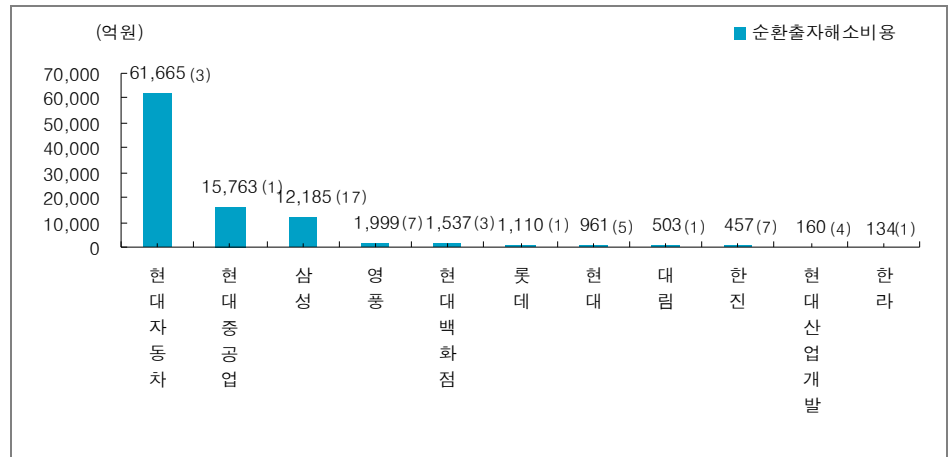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순환출자, 출총제, 그리고 금산분리 이슈에 대해서 세 후보는 다소 입장차가 관찰된다.

순환출자의 경우 세 후보 모두 신규 출자 제한에 동의한다. 다만 기존 출자분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최종 발표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문재인 후보는 기존출자에 대해서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기존 출자에 대해 자율적 해소 유도 후 개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6조 1,66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그룹이 각각 1조 5,763억원과 1조 2,18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순환출자 문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 대기업 그룹들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력 계열사를 지키기 위한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 또는 오너 일가의 사재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4] 주요 대기업 그룹의 순환출자 건수와 해소에 드는 비용



주: 괄호는 순환출자 건수
자료: 언론 재민용, 경제개혁연구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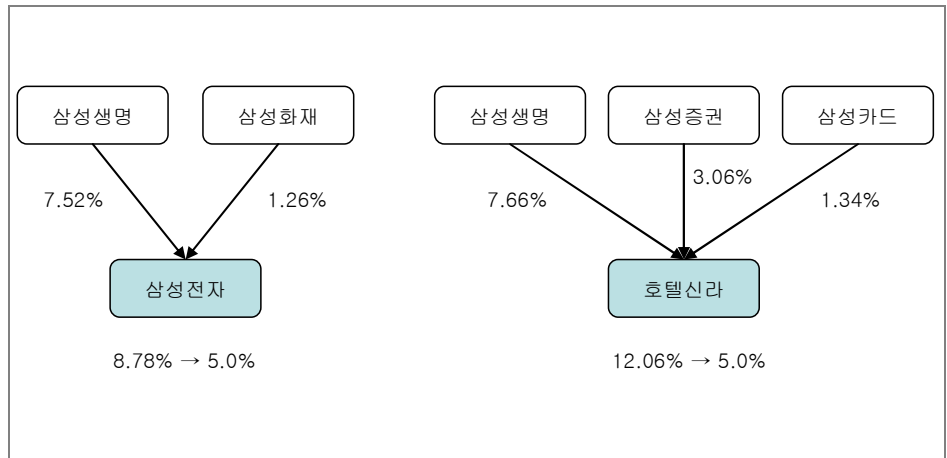
한편 출자총액제 부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안철수 후보는 당장 부활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상위 10개 대기업에 대해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는 출총제 부활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금산분리 이슈에 있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의결권 취득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은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 재벌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상한선 하향 (15% → 5%), 그리고 ▲ 안철수 후보의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는 실제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상한선이 하향될 경우, 지배구조상 삼성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최근 기준으로 삼성생명 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만 지분율을 감안하면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전을 위해 약 7.5조원의 자금이 다른 계열사에서 동원되거나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삼성 그룹 금융 계열사의 삼성전자 및 호텔신라 지분 보유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재벌 개혁에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주체간 상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책의 강도와 범위는 각 후보 진영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한 후보의 승리로서 즉각 정책결정을 독식하는 극단적인 쏠림보다는, 그에 앞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론의 장 확대가 선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Bear steepening? Bull steepening부터 대비하자

■ 지난주 시장동향: 모멘텀 부재 속에 지루한 박스권 장세

지난주 채권금리는 시장참가자들의 관망세 속에 보합권으로 출발했다.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지나치게 낮아진 금리레벨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심리는 제한되었다. 금리방향성을 결정할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금리는 횡보하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장중 변동성도 제한되었다. 결국 채권금리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 속에 소폭 하락하여 마감되었다.

■ 이번주 시장전망: 아직은 Bear steepening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 연내 추가인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기관들의 차익실현이 본격화되면서 채권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때문에 국채 30년 오버슈팅으로 억눌려있던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며 베어스티프닝(Bear steepening)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우리 예상대로 채권금리는 별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 베어스티프닝이 아니라 불스티프닝(Bull steepening)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제로금리 정책 쓰는 국가가 아니기에 언젠가는 채권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고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통화정책 완화가 재개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민감한 단기구간부터 금리가 하락하며 불스티프닝이 먼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채 30년은 아직 시장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당분간 베어스티프닝의 원인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루한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며, 금리인하가 재개되면 수익률 곡선이 불스티프닝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계속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상해종합 장 중 2,000p 하회 후 강세 전환

- ▶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70대 도시 중 35개 도시 신축주택가격 전월비 상승, 상승폭 0.5% 이내
- ▶ 중국 저우샤오환 인민은행장, 성장전환 과정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지속적 강조 필요
- ▶ 중국, 내년 상반기에 1차례 기준금리 인하, 연간 2차례 기준금리 인하 단행 전망 -신은만국

상해증시 장 중 2,000p
하회 후 강세 전환.
음식료, 부동산 외 대다수
업종 상승 마감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장 중 2,000p를 하회한 후 강세로 마감했다. 지난 9월 26일 일시적으로 2,000p를 하회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거래금액은 361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가격 반등에 따른 규제 강화 우려가 높아졌고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상승했다. 새 지도부의 성장정책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입 지표 연간 목표치 하회 전망 등 경기회복 속도 지연에 대한 부담도 지속됐다. 특히 주류업체를 비롯한 음식료업종이 장 중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일부 백주제조업체가 유해물질 발견으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주류업체 급락을 이끌었다. 반면 시멘트, 비철금속업종이 강세였고 증감위가 증권사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로 증권주도 크게 올랐다. 음식료(-3.5%), 여행(-0.4%), IT소프트웨어(-0.3%), 제약(-0.2%) 등이 하락했으나 그 외 임업(+3.3%), 증권(+2.0%), 신에너지(+1.7%), 시멘트(+1.7%), 항공(+1.3%), 유틸리티(+1.2%), 제지(+0.9%), 석탄(+0.9%), 비철금속(+0.8%), 화학(+0.8%), 기계(+0.7%), 건설(+0.6%)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강세 유지.
자동차, 통신, 유틸리티업종
상승 주도

홍콩H지수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와의 재정절벽 해결 관련 협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연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금유입이 지속됐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부양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우호적인 요인이었다. 장 중 본토 증시 하락으로 한 때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강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통신, 유틸리티, 석유/천연가스, 보험, 석탄, 건설, 철강/비철금속, IT, 은행, 해운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반면 농업, 전자, 소매유통, 헬스케어 관련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19(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16.98	0.11	-3.00	-2.51	-8.29
홍콩 H	10,290.21	0.46	-1.47	-2.76	3.56
인도 SENSEX	18,292.62	-0.09	-2.94	-1.15	18.36
러시아 RTS	1,391.47	1.12	-0.91	-2.96	0.69
브라질 보베스파	55,402.33	-1.56	-3.69	-2.92	-2.38
베트남 VN	383.32	-0.62	-1.36	-1.31	9.04
MSCI 이머징마켓	969.82	-0.46	-1.97	-2.56	5.83

주: 19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재정절벽 우려감이 완화되며 코스피, 코스닥 동반 강세

- 중동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미국증시는 닷새만에 상승세로 마감.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국가지방단체 등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장중 1,88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며 마감. 재정절벽을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데 힘입어 투자심리는 개선된 모습. 한편, 지난주 폭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로 2% 이상 급등, 490P선을 회복하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수처리 관련 업체 에코니티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SK가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치과용 의료장비 제조업체 바텍은 신제품 팩스아이의 해외 수출 기대감에 급등. 또한, 시베리아 종단열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 개발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철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태플릿PC 성장으로 터치패널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한편, 전 최대주주인 유아이가 1년 2개월만에 취득한 주식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 먹튀 논란에 휩싸인 후너스는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휠라코리아는 3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SK(003600) ▶176,500(+4.13%)	중국 수처리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소식에 신고가 경신 - 국내 최대 수처리 분리막 제조업체인 에코니티와 함께 중국 베이징 수처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내년부터 중국 내 수처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최근 잇따른 원전 가동 중단으로 겨울철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력 자회사인 SK E&S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바텍(043150) ▶10,250(+8.93%)	치과용 엑스레이, EU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급등세 - EU 인구의 고령화 및 동부 유럽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한국산 치과용 의료기기의 현지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인 동사의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 올해 출시한 신제품 팩스아이는 주요부품 내재화를 통해 기존제품 대비 40% 정도의 원가절감을 이뤄냈으며, 신흥국의 치과용 X-Ray 검사장비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철도 관련주	시베리아 종단열차 한국 참여 요청 소식에 강세 - 러시아가 시베리아 종단열차 건설에 한국이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대아티아이(045390, +10.47%), 세명전기(017510, +8.62%), 리노스(039980, +6.40%), 대호에이엘(069460, +6.25%), 광명전기(017040, +4.24%) 등 강세
태플릿PC 관련주	태플릿PC 성장 기대감에 강세 - 삼성전자가 내년 태플릿PC 판매량 증가를 대비해 터치패널 공급망을 확대하는 등 태플릿PC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이랜텍(054210), 플렉스컴(065270, 이상 상한가), 모베이스(101330, +14.35%), 일진디스플레이(020760, +7.98%), 에스맥(097780, +7.67%), 이라이콤(041520, +6.91%)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동일금속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동일금속 (109860)	- 크롤러크레인 트럭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럭수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지속적인 캐파증설로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1. 12A	101	17	10	1,550	8.0
	2012. 12F	120	20	14	1,940	6.8

- 편입 제외 종목: 녹십자(기관 경과로 제외 -1.9%)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엠케이전자 (033160)	4,330 (+3.5)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다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3,500 (-6.6)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CJ E&M (130960)	27,750 (-2.8)	28,550 (10/19)	-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콘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 -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
골프존 (121440)	54,400 (-2.9)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농심 (004370)	256,000 (-6.6)	274,000 (10/10)	- 한국물 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효과, 시장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은 66.1%(2분기 6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프리미엄 라면을 중심으로 한 라면시장의 성장 가능성, 고가품 비중 확대, 이익 가시성 강화,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LS (006260)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꼬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1. 12A	12,352	338	118	4,237	17.9
	2012. 12F	12,291	574	234	8,410	10.6

- 편입 제외 종목: 씨유메디칼(시세 부진으로 제외 -15.6%)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영이앤씨 (065570)	7,250 (+0.1)	7,240 (11/07)	46	11	9	1,023	7.1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32,000 (+2.5)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8.8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47,000 (-5.0)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1.6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81,500 (+0.9)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0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297,000 (-8.9)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3.4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관,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10월 노트북패널 출하량 전월 대비 16% 감소, 재고조정 시작

■ 노트북패널 전월 대비 출하량 16.4% 감소하면서 재고조정 시작

10월 노트북패널 출하량이 전월 대비 16.4%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재고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MoM 기준 16%의 감소율은 2009년 1월 이후 월별 감소율로는 가장 높다. 그만큼 산업 내 노트북패널의 재고가 높다는 의미이다. 노트북패널 수요가 지난 8월 고점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패널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다. 패널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IT패널의 생산을 줄이면서 공급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V패널 재고조정이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패널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TV패널 출하량 전월 대비 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해 재고부담 가중

10월 TV패널출하량은 1.0% 증가했다. 지난 8월과 9월의 MoM증가율 11%, 4%에 비하면 계절적으로 패널수요가 peak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1.6%로 9월의 11.4%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TV패널의 출하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말 수요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특히 미국의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현재의 패널 수요에 반영되고 있는 완제품업체들의 기대 수준은 연말에 나타날 실제 TV수요 대비 높다고 판단된다. 선진국 수요시즌을 대비한 패널수요가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TV패널수요의 약세가 예상된다.

■ 애플 9.7인치 수요 감소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 태블릿PC 패널점유율 48%로 상승

LG디스플레이의 태블릿PC용 패널점유율이 10월에 48%까지 높아져 단기적으로 고점 수준에 이르렀다. 애플의 9.7인치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아이패드미니 출시로 인해 동사의 출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전체의 태블릿PC패널 출하량은 전월 대비 11% 증가했지만, 9인치 미만의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패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아이패드미니 패널 비중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9.7인치 패널출하량은 전월 대비 오히려 13% 감소해 비중이 59%(vs. 전월 79%)까지 하락했다. 태블릿PC 패널출하량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 디스플레이 업종 투자의견 '중립' 유지

패널수요 약세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단기적으로 4분기가 패널수급의 고점이 될 전망이다. TV패널 수요에 반영된 TV업체들의 수요 기대감이 높아 연말 TV수요 성수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고조정으로 인한 패널수급 약화가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는데 4분기를 고점으로 이익모멘텀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글로벌 시장점유율 9.8%로 사상 최고

■ 10월 글로벌 시장점유율 9.8%로 사상 최고치 기록

계속되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10월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전년동월대비 5% 성장했다. 이로써 10월까지 누적 성장율은 6.2%로 9월까지 누적 6.3%에서 소폭 둔화됐다. 산업 호황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10월 사상 최대인 643,627대(+11.9% YoY)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사상 2번째로 많았던 중국판매(125,603대, +25.6% YoY)가 견인했다. 향후 강화된 라인업, 생산능력 확장, 그리고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일감정 등으로 양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세는 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와 기아의 10월까지 누적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8.4%에서 8.6%로 상승했다(현대 5.2% → 5.3%, 기아 3.2% → 3.3%).

■ 자동차산업 성장세 13년에도 지속될 전망

10월 글로벌 수요는 미국(+7% YoY), 브라질/아르헨티나(+11.9% YoY), 중국(+3.6% YoY)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 증가한 656만대를 기록했다. 10월까지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 6,759만대이며 12년 연간 수요의 추정치는 5% 증가한 7,923만대이다. 13년에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이머징마켓의 수요 증가로 12년보다 3.4% 많은 8,192만대가 판매될 전망이다. 미국시장은 12년 12.7% 증가한 이후 13년에는 4.2% 많은 1,50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10년부터 지속된 두자리수 증가율 유지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시장은 12년 3.5% 증가한 이후 13년에는 신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증가율이 6%로 반등해 2,03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현대와 기아의 중국판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대차, 기아차 연간 글로벌 시장점유율 9% 넘어설 전망

양사의 12년, 13년 판매는 각각 710만대(현대차 436만대, 기아차 274만대), 766만대(현대차 471만대, 기아차 295만대)로 추정하고 있어 합산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1년 8.7%(현대차 5.4%, 기아차 3.4%)에서 12년 9%(현대차 5.5%, 기아차 3.5%)에 이어 13년 9.4%(현대차 5.8%, 기아차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양사의 사상 최저 재고(10월 말 기준 현대차 1.7, 기아차 1.4개월분), 강화된 라인업, 플랫폼 통합, 산업 호황 등을 고려하면 양사의 수익성은 13년에도 좋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적용, 역사적 평균치에 10% 할증)과 105,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강원랜드(035250)

매수(상향)

목표가: 32,000원

종가(11/16): 26,400원

카지노 영업장 증설 논의 본격화

■ What's new : '증설 허가 압박' 언론 보도로 증설 논의 진행 확인

11월 16일 머니투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의 카지노 테이블과 슬롯머신 증설을 11월 중에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허가로 테이블 68대와 슬롯머신 400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영업장 테이블 112대와 슬롯머신 960대의 각각 61%, 42%에 해당한다. 강원랜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뉴스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카지노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해 건물 증축(기존 일반영업장 면적의 약 86%)을 완료했으나 아직 카지노 영업장 확장과 게임 기구 증설 허가를 받지 못해 늘어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4월 19일 보고서에서 테이블과 슬롯머신이 각각 60%, 40% 늘어나면 2013년 EPS가 3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 Positives : 회원영업장 실적 개선과 비카지노 사업 호조

3분기 매출액은 3,3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다. 카지노 매출은 회원영업장과 슬롯머신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 성장했고, 비카지노 매출은 컨벤션 호텔 개장 효과 지속과 골프장 매출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다. 특히, 카지노 회원영업장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해 2분기에 이어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슬롯머신 매출도 빈자리 확인 시스템과 고객 사은 행사 실시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다.

■ Negatives :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증가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0% 감소한 1,058억원으로 컨센서스 1,147억원을 7.8% 하회했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건비가 늘었고, 광고선전비, 기부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희망퇴직으로 82명에 대한 80~9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데, 향후 인건비 부담이 축소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 결론 : 증설 논의 본격화,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조정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32,000원으로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2013년 예상 EPS 1,603원(카지노 영업장 확장과 게임기구 증설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 기준)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해 구했다. 테이블과 슬롯머신이 각각 60%, 40% 증설되는 것을 가정한 2013년 실적기준 목표주가의 Implied PER은 15.2배이다.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 경제 민주화 이슈 등으로 카지노 영업장 증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증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30	333	0.8	340	8.8	1.7	1,313	1,316
영업이익	110	106	(4.1)	115	3.7	(21.0)	420	429
영업이익률(%)	33.4	31.8	-	33.7	-	-	30.4	32.6
세전이익	117	108	(7.4)	120	0.5	(22.8)	427	440
순이익	89	82	(8.5)	90	1.1	(21.6)	326	328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11/1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0.87	1,889.70	1,894.04	1,870.72	1,860.83	1,878.10
	등락폭	-3.54	-11.17	4.34	-23.32	-9.89	17.27
	등락종목	상승(상한)	214(4)	337(4)	230(6)	241(5)	603(6)
		하락(하한)	613(5)	482(9)	612(4)	585(2)	237(1)
	ADR	86.25	80.88	78.41	77.32	75.36	79.59
	이격도	10 일	98.87	99.19	98.11	97.89	98.96
		20 일	98.52	98.91	97.92	97.61	98.68
	투자심리	50	40	40	40	30	40
	거래량 (백만 주)	469	487	526	447	459	346
	거래대금 (십억 원)	3,735	3,859	4,699	4,137	3,988	3,204
코스닥	코스닥지수	521.43	513.80	503.24	493.84	482.99	493.14
	등락폭	1.53	-7.63	-10.56	-9.40	-10.85	10.15
	등락종목	상승(상한)	254(9)	273(5)	234(7)	218(6)	724(10)
		하락(하한)	700(2)	673(15)	711(9)	735(9)	218(4)
	ADR	85.88	81.91	78.64	78.70	74.44	78.26
	이격도	10 일	99.65	97.70	96.16	94.60	97.01
		20 일	99.68	97.86	96.23	94.44	96.71
	투자심리	100	90	80	7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09	473	464	462	465	391
	거래대금 (십억 원)	1,883	2,034	2,189	1,932	2,239	1,57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642.2	715.1	827.2	119.4	89.5	177.6	58.3	19.7	123.0	41.3
	매도	1,681.0	853.5	655.2	148.4	85.2	175.3	43.8	18.8	131.8	36.1
	순매수	-38.8	-138.4	172.0	-29.0	4.3	2.2	14.5	1.0	-8.8	5.2
	11 월 누계	309.1	-717.4	611.5	54.3	65.9	103.0	0.6	51.0	508.6	-203.2
	12 년 누계	-10,768.0	12,960.5	2,666.9	1,638.1	2,628.3	-4,989.9	-20.7	468.8	2,749.1	-4,859.4
코스닥	매수	1,355.8	112.4	111.8	16.0	15.3	37.1	8.5	5.3	25.8	14.1
	매도	1,421.7	59.0	99.0	25.5	10.5	24.4	7.6	8.3	21.7	14.4
	순매수	-65.9	53.4	12.8	-9.4	4.7	12.6	0.9	-3.0	4.1	-0.4
	11 월 누계	91.9	-43.2	42.6	35.8	-20.3	78.1	-72.3	3.4	22.9	-91.3
	12 년 누계	1,184.6	71.3	-450.2	88.1	60.7	-536.3	-267.6	-35.0	244.6	-805.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3,929	서비스업	-7,894	전기,전자	10,423	운수장비	-10,867
섬유,의복	1,545	유통업	-5,179	서비스업	4,494	은행	-5,613
증권	1,437	철강및금속	-3,969	철강및금속	3,302	금융업	-3,279
삼성전자	22,320	엔씨소프트	-8,835	삼성전자	6,952	현대차	-4,806
GS	4,728	고려아연	-6,574	GS	4,152	기아차	-4,677
현대차	4,152	기아차	-5,351	LG디스플레이	3,730	현대모비스	-4,643
대우조선해양	3,350	현대위아	-4,131	현대제철	3,725	기업은행	-4,505
현대모비스	2,483	SK하이닉스	-3,681	현대미포조선	2,377	신한지주	-3,58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975	전기,전자	-1,416	전기,전자	5,959	금융업	-4,059
서비스업	742	음식료품	-1,042	건설업	3,308	유통업	-3,601
건설업	728	화학	-595	화학	2,085	운수장비	-2,769
현대건설	1,225	삼성전기	-2,021	현대건설	4,384	휠라코리아	-3,099
제일모직	942	SK케미칼	-1,047	금호석유	3,417	KB금융	-2,284
삼성생명	765	기아차	-845	GS	2,836	현대모비스	-2,210
삼성전자	715	빙그레	-738	삼성전자	2,283	신한지주	-1,788
KODEX 레버리지	688	삼성SDI	-603	SK텔레콤	1,868	LG	-1,662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95,578	은행	-2,515	보험	5,705	전기,전자	-74,808
화학	12,349	보험	-1,393	음식료품	5,260	운수장비	-43,085
운수장비	11,110	비금속광물	-84	통신업	3,525	금융업	-15,563
삼성전자	60,965	KODEX 인버스	-21,156	강원랜드	6,529	삼성전자	-33,488
KODEX 레버리지	47,483	엔씨소프트	-13,330	KT	5,972	LG전자	-26,588
KODEX 200	20,541	기아차	-10,116	KODEX 인버스	5,771	기아차	-22,891
현대차	13,088	휠라코리아	-7,514	삼성중공업	4,942	KODEX 200	-15,706
POSCO	10,999	고려아연	-7,255	대우인터내셔널	3,045	현대차	-14,982
GS	9,150	현대위아	-3,741	현대위아	2,959	LG디스플레이	-12,658
LG전자	8,841	KCC	-3,716	락앤락	2,956	POSCO	-8,792
LG디스플레이	8,787	삼성엔지니어링	-3,390	OCI	2,719	SK하이닉스	-7,595
삼성전기	8,285	코스맥스	-2,614	디아이	2,668	KB금융	-6,629
현대제철	7,533	기업은행	-2,551	GKL	2,605	대우조선해양	-5,681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737	오락,문화	-421
반도체	1,546	화학	-394
IT부품	1,450	교육	-319
컴투스	3,177	이라이콤	-1,259
에스엠	1,712	이엘케이	-821
씨젠	1,350	코오롱생명과학	-747
성광벤드	856	네오위즈인터넷	-668
메디톡스	761	KH바텍	-53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4,280	디지털컨텐츠	-888
반도체	2,125	통신서비스	-696
운송장비,부품	1,202	기계,장비	-640
멜파스	1,577	바이오랜드	-685
서울반도체	1,469	나이스정보통신	-565
오스템임플란트	1,387	에스에프에이	-551
평화정공	882	티씨케이	-540
KH바텍	621	웹젠	-46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15	금속	-1,043
출판,매체복제	413	제약	-652
오락,문화	188	음식료,담배	-578
실리콘웍스	721	포스코엠텍	-1,171
에스엠	413	메디톡스	-1,018
위메이드	361	매일유업	-579
루멘스	272	JCE	-365
게임빌	196	하나투어	-28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2,382	인터넷	-693
IT부품	1,343	음식료,담배	-587
반도체	1,184	화학	-357
씨젠	959	다음	-693
메디톡스	914	바이오랜드	-643
네패스	863	매일유업	-587
위메이드	852	디지털시스템	-346
이엘케이	836	덕산하이메탈	-32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7,986	화학	-2,214
디지털컨텐츠	3,825	오락,문화	-1,089
반도체	2,849	음식료,담배	-1,015
컴투스	4,203	이라이콤	-1,904
KH바텍	2,302	바이오랜드	-1,626
서울반도체	2,180	파라다이스	-1,069
골프존	1,947	네오위즈인터넷	-987
멜파스	1,910	플렉스컴	-981
오스템임플란트	1,877	실리콘웍스	-860
위메이드	1,590	다음	-858
CJ오쇼핑	1,453	솔브레인	-780
평화정공	1,428	티씨케이	-751
네패스	1,336	매일유업	-74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0,636	도매	-1,190
IT부품	9,169	디지털컨텐츠	-924
반도체	4,617	통신서비스	-220
에스엠	10,393	컴투스	-1,892
파라다이스	3,291	씨티씨바이오	-1,605
에이블씨엔씨	1,989	위메이드	-1,443
셀트리온	1,519	인탑스	-1,258
이라이콤	1,468	루멘스	-801
매일유업	1,370	아트라스BX	-756
멜파스	1,310	나이스정보통신	-560
플렉스컴	1,144	메디톡스	-458
미래나노텍	1,101	CJ오쇼핑	-391
한국사이버결제	991	KH바텍	-32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30 일	CJ제일제당	11 일
효성	24 일	삼영전자	9 일
SK	14 일	신도리코	7 일
남양유업	14 일	효성	6 일
SK텔레콤	14 일	S&T중공업	5 일
아세아시멘트	13 일	우리투자증권	5 일
하나금융지주	12 일	KT	5 일
KODEX 200	12 일	락앤락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3 일	한국토지신탁	8 일
서부T&D	9 일	게임하이	8 일
SK브로드밴드	9 일	SDN	6 일
네오위즈게임즈	9 일	GS홈쇼핑	4 일
루멘스	8 일	파라다이스	4 일
CJ오쇼핑	7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포스코엠텍	6 일	젬백스	4 일
태웅	6 일	이엘케이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93,513	KT	47,878
LG전자	108,471	LG화학우	18,006
KODEX 200	102,433	한국전력	17,022
현대차	83,083	엔씨소프트	16,193
삼성전기	49,129	삼성SDI	16,073
SK텔레콤	45,661	현대해상	15,473
POSCO	30,767	삼성전기	10,409
KODEX 인버스	24,727	SK이노베이션	10,363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인터파크	50,818	에스엠	12,340
SK브로드밴드	17,709	파라다이스	11,962
멜파스	9,757	다음	8,678
컴투스	6,588	솔브레인	4,544
포스코엠텍	6,129	에이블씨엔씨	4,239
위메이드	5,968	이엘케이	4,183
CJ오쇼핑	5,117	인터파크	3,076
루멘스	3,823	게임빌	2,98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4,283	3,525 7,808
음식료품		2,017	5,260 7,277
의약품		5,132	2,030 7,162
강원랜드		1,197	6,529 7,727
현대제철		7,533	191 7,724
NHN		5,856	852 6,708
SK		4,249	866 5,116
한국가스공사		3,290	1,619 4,908
현대건설		3,600	1,057 4,657
삼성생명		2,875	1,313 4,188
락앤락		469	2,956 3,425
대상		1,560	1,752 3,312
OCI		503	2,719 3,222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7,986	9,169 17,154
출판,매체복제		99	10,636 10,735
반도체		2,849	4,617 7,466
에스엠		294	10,393 10,687
멜파스		1,910	1,310 3,220
서울반도체		2,180	624 2,805
오스템임플란트		1,877	803 2,681
골프존		1,947	279 2,227
네패스		1,336	535 1,871
씨젠		1,313	530 1,843
셀트리온		211	1,519 1,730
비에이치		804	555 1,359
이녹스		1,146	116 1,26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진해운홀딩스	27 일	하나금융지주	22 일	동국산업	17 일	KCC건설	8 일
삼성카드	16 일	SK텔레콤	21 일	포스코 ICT	6 일	동서	6 일
현대중공업	13 일	대한제분	13 일	파트론	6 일	성광벤드	5 일
STX팬오션	11 일	대교	12 일	파라다이스	5 일	KH바텍	5 일
두산인프라코어	11 일	유니드	11 일	인터플렉스	5 일	위메이드	5 일
무림P&P	9 일	KODEX 200	11 일	심텍	4 일	CJ오쇼핑	4 일
동부제철	9 일	고려제강	10 일	SK컴즈	4 일	평화정공	4 일
코오롱	8 일	쌍용양회	10 일	웹젠	4 일	테라리소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97,654	삼성전자	-210,287	에스엠	-107,706	셀트리온	-7,272
엔씨소프트	-51,632	KODEX 200	-112,245	파라다이스	-14,011	메디톡스	-6,560
삼성카드	-27,903	LG전자	-53,133	이엘케이	-12,544	컴투스	-5,626
현대중공업	-25,426	현대차	-49,032	씨젠	-8,684	하나투어	-4,909
금호석유	-23,578	SK텔레콤	-42,836	인터플렉스	-7,984	성광벤드	-4,784
한국전력	-20,158	POSCO	-31,437	태광	-7,898	루멘스	-4,566
LG화학우	-19,239	GS건설	-30,132	다음	-6,872	태광	-4,462
GS건설	-18,193	LG	-24,587	에이블씨엔씨	-5,218	위메이드	-3,645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은행	-2,515	-3,556	-6,071	교육	-174	-188	-362
유통업	336	211	546	전기,가스	0	-6	-6
종이,목재	1,090	1,213	2,303	부동산	0	0	0
기아차	-10,116	-22,891	-33,007	씨티씨바이오	-19	-1,605	-1,624
고려아연	-7,255	-3,506	-10,761	나이스정보통신	-565	-560	-1,124
삼성엔지니어링	-3,390	-2,643	-6,034	다음	-858	-263	-1,121
LG	-1,184	-4,720	-5,904	솔브레인	-780	-267	-1,047
호남석유	-405	-4,291	-4,696	메가스터디	-195	-269	-464
기업은행	-2,551	-1,823	-4,374	포스코 ICT	-387	-77	-463
KCC	-3,716	-5	-3,721	대화제약	-381	-29	-410
코스맥스	-2,614	-598	-3,213	CJ E&M	-269	-69	-338
CJ	-1,875	-1,131	-3,006	ISC	-304	-24	-328
우리금융	-1,020	-1,064	-2,084	우주일렉트로	-270	-1	-27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4	44,672
LG전자	147	11,899
NHN	37	9,065
OCI	50	7,475
현대차	24	5,244
현대모비스	17	4,692
삼성전기	37	3,588
SK하이닉스	128	3,26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8,460	739,954
서울반도체	5,903	132,811
에스엠	1,640	69,865
게임빌	515	66,499
덕산하이메탈	2,722	49,944
위메이드	971	43,146
에이블씨엔씨	470	38,793
다음	450	37,75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78	5,329,308
LG전자	43,652	3,513,948
POSCO	9,609	3,036,449
OCI	9,561	1,410,275
현대차	6,025	1,298,381
NHN	3,466	845,628
SK하이닉스	30,645	764,604
현대모비스	2,302	623,72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8,188	714,558
서울반도체	5,903	135,467
에스엠	1,575	78,908
게임빌	510	67,077
덕산하이메탈	2,718	49,473
위메이드	942	46,842
에이블씨엔씨	470	40,485
다음	454	38,27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화학	1,280	금융업	-10,009
철강및금속	1,154	운수장비	-3,232
유통업	993	서비스업	-1,722
케이피케미칼	1,033	신한지주	-2,866
SG세계물산	900	우리금융	-2,852
LG전자우	794	KB금융	-2,012
현대상선	784	SK하이닉스	-1,786
넥센타이어	783	삼성중공업	-1,630
대한전선	670	기아차	-1,496
대우조선해양	510	LG디스플레이	-1,247
신성통상	445	하나금융지주	-1,244
동국제강	420	두산인프라코어	-995
제일기획	388	한국전력	-8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2,411	금속광업	-78
도매	905	방송서비스	-10
반도체	641	금융	0
텍셀네트컴	1,128	대화제약	-312
서희건설	439	서울반도체	-306
라이브플렉스	379	파트론	-150
차이나그레이트	361	큐로컴	-144
원익IPS	276	차바이오앤	-110
에스넷	245	에스텍파마	-95
보성파워텍	230	인프라웨어	-93
에스코넥	193	인터플렉스	-92
플렉스컴	177	디지털시스템	-88
동서	174	씨앤케이인터	-7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11/19(월)
외국인	12,960.5	-717.4	-602.0	-2.0	-69.2	-257.9	-138.6	-138.4
기관계	2,666.9	611.5	608.8	-17.5	103.8	182.6	172.0	172.0
(투신)	-4,989.9	103.0	189.1	-41.1	69.8	51.1	107.5	2.2
(연기금)	2,867.0	491.2	239.4	54.8	-3.5	71.0	120.5	-4.1
(은행)	468.8	51.0	14.7	4.1	5.8	7.1	-3.4	1.0
(보험)	2,628.3	65.9	65.3	-7.3	7.9	46.7	13.7	4.3
개인	-10,768.0	309.1	-81.1	9.6	-45.0	31.6	-38.6	-38.8
기타	-4,859.4	-203.2	74.3	9.9	10.4	43.6	5.2	5.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00.87	1,889.70	1,894.04	1,870.72	1,860.83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241.8	16950.8	16962.3	17841.0	17128.4
(증감액)	2735.7	1996.5	3611.7	-70.9	-291.0	11.5	878.7	-712.6
(회전율)	52.6	51.5	34.2	33.0	35.7	41.2	34.4	36.9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212.7	-124.4	8.9	927.7	-727.5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495.6	4519.1	4515.4	4485.7	4489.4
미수금	240.2	192.3	187.7	164.1	141.2	142.7	149.1	153.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전체 주식형	95,483	-6,905	-25	28	92	-21	-116	27
(ex. ETF)		-9,313	-236	14	50	10	-180	41
국내 주식형	68,597	-3,748	151	43	104	-13	-102	48
(ex. ETF)		-6,156	-62	29	62	18	-166	62
해외 주식형	26,886	-3,158	-177	-15	-12	-8	-14	-20
(ex. ETF)		-3,158	-174	-15	-12	-8	-14	-20
주식 혼합형	10,397	-1,451	27	-2	-17	-6	-4	64
채권 혼합형	19,318	1,292	516	-3	0	1	109	6
채권형	45,887	1,474	710	19	0	35	24	-65
MMF	78,314	23,771	3,486	-1,058	1,032	596	402	1,32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11/19(월)
한 국	11,587	-654	-1,505	-2	-64	-237	-123	-122
대 만	1,388	-356	-957	-313	-60	-55	-101	-
인 도	18,719	618	-428	-	-	33	-	-
인도네시아	1,704	-315	-461	-68	-18	-	-	-
태국	1,288	-260	-375	-128	-51	-43	-41	-
남아공	-799	470	-113	-	-46	-114	-27	-
필리핀	2,021	48	-4	8	1	-2	-1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12(월)	11/13(화)	11/14(수)	11/15(목)	11/16(금)	11/19(월)
회사채 (AA-)	4.21	3.31	3.30	3.31	3.31	3.30	3.32
회사채 (BBB-)	10.01	8.70	8.68	8.69	8.69	8.68	8.70
국고채 (3년)	3.34	2.79	2.78	2.79	2.78	2.77	2.79
국고채 (5년)	3.46	2.86	2.84	2.85	2.85	2.84	2.86
국고채 (10년)	3.79	2.98	2.96	2.97	2.97	2.96	2.98
미 국채 (10년)	1.88	1.61	1.59	1.59	1.59	1.58	-
일 국채 (10년)	0.99	0.74	0.74	0.75	0.74	0.73	-
원/달러	1,151.80	1,088.60	1,089.90	1,084.90	1,086.70	1,092.20	1,087.90
원/엔	1,492.00	1,371.00	1,376.00	1,361.00	1,345.00	1,348.00	1,338.00
엔/달러	77.24	79.44	79.25	79.74	80.80	81.03	81.28
달러/유로	1.29	1.27	1.26	1.27	1.27	1.27	1.27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92	1.92	1.91	1.90	1.89	-
CRB 지수	305.30	292.15	292.16	293.92	292.84	293.56	-
LME 지수	3,306.0	3,285.8	3,300.9	3,290.5	3,289.7	3,269.4	-
BDI	1,738	965	985	985	1,024	1,036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6.05	85.63	85.35	85.45	86.92	-
금 (달러/온스)	1,566.80	1,730.90	1,724.80	1,730.10	1,713.80	1,714.7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13일	246.90	247.40	0.58	0.50	0.40	183,903	100,181	2,409
11월 14일	247.80	248.30	0.56	0.50	0.49	168,092	98,703	-1,478
11월 15일	244.64	244.40	0.53	-0.24	0.37	175,621	103,266	4,563
11월 16일	243.45	243.65	0.51	0.20	0.21	159,698	106,380	3,114
11월 19일	245.82	246.50	0.48	0.68	0.44	153,106	102,895	-3,485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13일	-396	-1,046	1,133	972	622	-169	-311	1
11월 14일	691	-20	-566	-442	1,255	136	-77	-1
11월 15일	-3,557	1,629	2,088	3,077	-1,399	62	142	1
11월 16일	-2,206	1,387	753	-96	632	-193	-229	0
11월 19일	4,608	-1,661	-3,388	-2,114	194	164	-31	-1
누적포지션	-19,026	5,573	12,964	3,375	9,448	-1,190	-1,328	2,69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13일	525	567	42	471	519	48	54	48	-6	6,237	9,747
11월 14일	745	784	39	717	607	-110	28	177	148	6,183	9,836
11월 15일	811	686	-124	738	609	-129	73	77	5	6,189	9,841
11월 16일	698	689	-9	574	652	78	124	38	-86	6,216	9,777
11월 19일	455	742	287	431	558	127	24	184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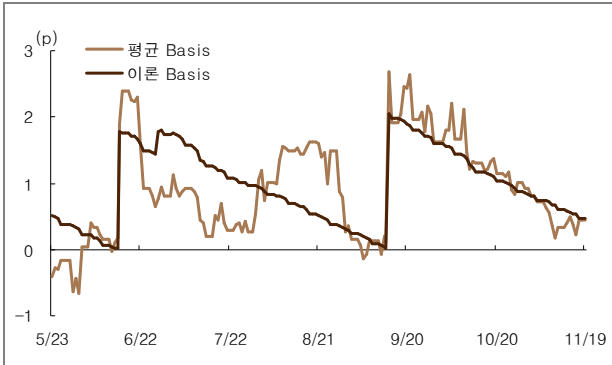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5.48	-2,728	129,543	1.04	255.00	9.55	209	55	14.30
15.63	-144	100,221	1.62	252.50	7.60	452	27	14.49
15.86	725	116,538	2.43	250.00	5.95	2,468	179	15.02
16.39	334	16,503	3.55	247.50	4.55	5,068	182	15.50
17.08	-64	10,412	4.95	245.00	3.40	10,608	545	15.96
17.05	-144	2,947	6.40	242.50	2.44	59,466	1,104	16.22
17.62	149	951	8.20	240.00	1.71	75,506	2,510	16.53
18.11	12	288	10.15	237.50	1.20	69,066	291	17.03
18.99	14	64	12.30	235.00	0.87	66,942	1,073	17.82
18.35	11	58	14.35	232.50	0.59	51,185	1,053	18.25
21.31	5	8	16.90	230.00	0.43	50,837	1,023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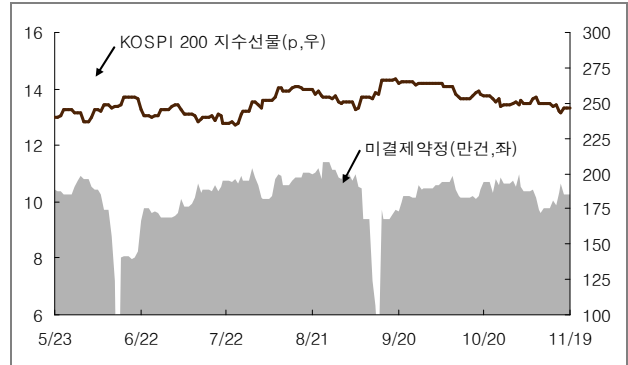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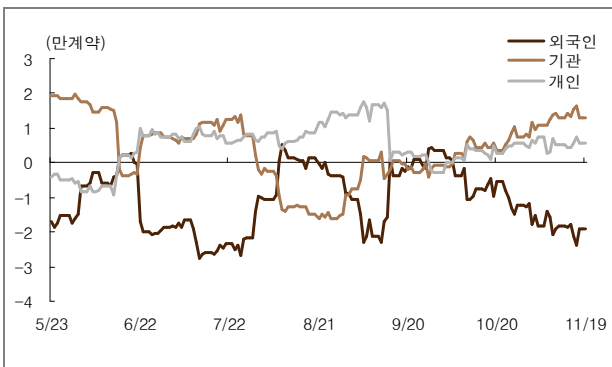
- 평균 Basis: 0.44 (전 거래일 대비 0.23 상승)
- 이론 Basis: 0.48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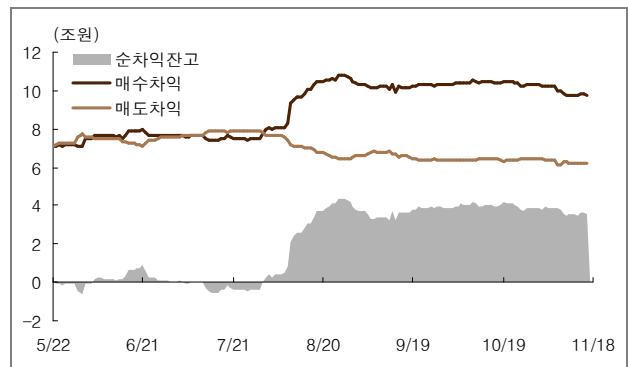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485 계약 감소한 102,895 계약
- 선물가격(246.50): 전 거래일 대비 2.8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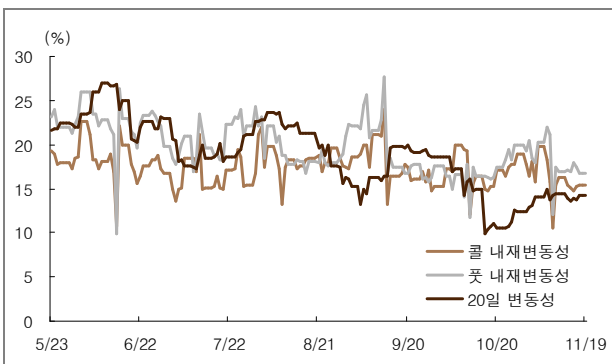
- 외국인: 4,608 계약 순매수
- 기관: 3,388 계약 순매도 / 개인: 1,661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602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268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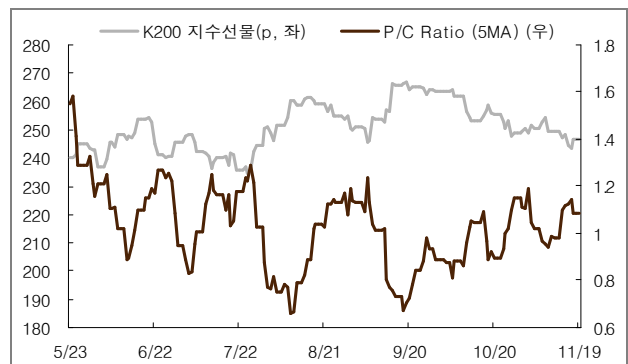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5% / 풋 16.7%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4.31%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9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유럽> (11/11) 그리스 2013년 예산안 의회 표결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 중> (11/10) 10월 무역수지 (\$31.99B, \$27.30B, \$27.67B) (11/10) 10월 수출 YoY (11.6%, 10.0%, 9.9%) (11/10) 10월 수입 YoY (2.4%, 3.4%, 2.4%) 10월 신규 위안 대출 (505.2B, 590.0B, 623.2B) 10월 통화공급 M2 YoY (14.1%, 14.5%, 14.8%) 日> 3분기 GDP QoQ 속보치 (-0.9%, -0.9%, 0.2%)	美>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3.1, 93.0, 92.8) 하원 개회 유럽> 독일 11월 ZEW 현황 조사치 (5.4, 8.0, 10.0) 독일 11월 ZEW 전망 조사치 (-15.7, -10.0, -11.5)	韓> 10월 실업률 (3.0%, 3.1%, 3.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2.6%, n/a, -5.0%)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3%, 2.6%, 2.1%) 10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0.3%, -0.2%, 1.1%) 9월 기업재고 MoM (0.7%, 0.6%, 0.6%)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유럽> 9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2.5%, -2.0%, 0.6%) 中> 제18차 당대회 폐막	韓> 10월 수출물가지수 YoY (-5.2%, n/a, -1.9%)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6.4%, n/a, -2.4%)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3.9만, 37.5만, 35.5만)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2.2%, 2.1%, 2.0%)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5.22, -8.00, -6.16)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10.7, 2.0, 5.7) 유럽> 10월 유로권 CPI YoY (2.5%, 2.5%, 2.5%) 3분기 유로권 GDP YoY 속보치 (-0.6%, -0.6%, -0.5%)	美> 10월 산업생산 YoY (-0.4%, 0.2%, 0.4%) 오바마-의회 지도부 회동 유럽> 9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11.3B, 9.5B, 9.9B)
19	20	21	22	23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n/a, 41, 41) 10월 기존주택매매 MoM (n/a, -0.1%, -1.7%) 中> 10월 실질 FDI (미확정) (n/a, 1.0%, -6.8%) 실적발표> 韓 한국가스공사 美 로위스, 타이슨푸드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3.7%, 15.0%) 10월 건축허가 MoM (n/a, -2.8%, 11.6%)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日> BOJ 정책금리 (n/a, 0.10%, 0.10%) 실적발표> 美 HP, 베스트바이	韓> 10월 백화점 매출 YoY (n/a, n/a, -0.8%) 10월 할인점 매출 YoY (n/a, n/a, 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2.6%)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n/a, 0.1%, 0.6%) 日> 10월 수출 YoY (n/a, -4.9%, -10.3%) 10월 수입 YoY (n/a, -3.2%, 4.1%) 실적발표> 美 세일즈포스닷컴*, 디어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40.0만, 43.9만) 유럽> 11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속보치 (n/a, -25.9, -25.7)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n/a, 45.0, 45.4)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n/a, 46.0, 46.0) (11/22-23) 유로존 정상 회담 中> 11월 HSBC플레이시 PMI 제조업 (n/a, n/a, 49.5)	美>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발표> 韓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오위즈 게임즈
26	27	28	29	30
韓>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유럽> (11/25) 스페인 카탈루냐 조기 총선	韓>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美> 10월 내구재 주문 MoM 9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11월 소비자대지수 9월 주택가격지수 MoM 연준 베이지북 공개 中> 10월 선행지수 (미확정)	韓> 10월 경상수지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韓> 12월 BSI 제조업 12월 BSI 비제조업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신규주택매매 MoM 10월 미결주택매매 MoM	韓> 10월 산업생산 YoY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美> 10월 개인소득 MoM 10월 개인소비지수 MoM 유럽> 10월 유로권 실업률 日> 10월 실업률 10월 국내 CPI YoY 10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